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 상담

이혜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논문은 상담의 정의, 목표, 과정 그리고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에는 여성성의 원형이 있다고 보며, 여성상담은 지금까지 열등한 것으로만 여겨온 여성적 가치관, 여성적 행동양식, 여성적 특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적인' 여성상담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여성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여성의 자아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을 시작하며

나)의 입장

하나의 학문이 내포하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을 여성성²⁾이나 남성성의 원형³⁾으로 구분하는

1) 대부분의 학술 논문에서는 '필자' 또는 '연구자'라는 3인칭을 쓰는 것이 보통이나 이 논문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검증 없이 썼기 때문에 '나'라는 일인칭을 쓰기로 한다. 그리고 '상담'에서 사용되는 전문지식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상식화 되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평이하고 쉽게 쓰려는 의도에서 '나'라는 일인칭을 사용한다.

2) 여성성: Sandra Bem의 BSRI에서 제시한 여성성 척도에 나타난 여성의 특성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예들은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다' '연민의 정이 많다' '부드럽다' '자애롭다' '동정심이 많다' '이해심이 있다' '상한 마음(감정)을 위로해 주고 싶어한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등이다.

3) 원형(archetype): 융(Jung)의 심리학 개념. 원형은 집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상담은 여성성의 원형⁴⁾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 첫째 이유는 상담의 정의(定義), 목표(目標), 과정(過程), 그리고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등이 여성성의 원형에 부합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자가 되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받고 있는, 그리고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남성 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 상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다르게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글은 순수한 나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

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본능적 행동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집단무의식이란 무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행동양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4) 여성성의 원형: earth mother 또는 mother nature (양육, 보살핌, 포용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상담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상담의 정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성있게 표현한다면 '상담은 사람을 돕는 전문영역으로서, 심리적, 사회적 장애나 문제행동의 예방, 치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의 지원 등의 세가지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가지의 활동들 중에서 나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의 지원에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교육적인 배경과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인본주의적인 면에 많이 경주되어 있는 때문에 비롯된 확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상담은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는 힘을 길러주는 원동력'이고,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가 나의 상담 목표이며, '인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개발과 인간만이 지닌 존엄성과 권위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나의 상담과정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상담은 인간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여 그가 처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발전하면서 행복하고 활기 있게 삶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73년에 상담자 교육(counselor education)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1974년 귀국한 이래로 오늘 날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는 상담 분야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대학교에서의 상담 심리학 강의와 실제 상담, 슈퍼비전, 사회기관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 한국 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의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의 상담 관계 일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열정이 매우 특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매달 3째 토요일에 모이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다. 뿐만 아니라, 1963년에 창립된 '한국카운슬러 협회'는 연차대회 때 등록하는 회원의 수가 2,000명이 훨씬 넘는, 우리나라 연구집회 중 제일 규모가 큰 모임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초창기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회원들이 아직도 연차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상담에 대한 대단한 의욕과 성의, 참여의식으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상담활동 그 자체를 그들 자신의 삶의 과제로, 생활양식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내가 대하는 상담자, 상담심리학자, 상담교육자, 상담지원자, 내담자 등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상담 및 심리학회의 월례모임 참여 숫자의 거의 90%가 여자이고, 이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담심리사의 남녀 비율은 3:7정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상담 전문가의 남녀 비율은 5:5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내게 늘 기분 좋은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전체 모임에서나 학회 임원들과의 모임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허용적인' 분위기이다. 이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부드러운 친근감과 따뜻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런 느낌은 분명히 여성적인 특성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나는 상담을 여성성의 원형을 갖춘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부드럽고 허용적인 특성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상담의 전과정이 가지는 특성은 아무래도 여성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담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은 나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나 이 글을 쓰는 현재의 입장은 상담이 가지는 여성성, 즉,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포용과 이해 그리고 격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 몇년간 나는 대학원 과정에서 '여성상담 연구'라는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각종의 '여성상담' 및 '여성 심리치료'에 관한 논문들을 섭렵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오고 출판되어오는 '여성심리치료(feminine psychotherapy)'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아래에서 억압받고 저해당해온 여성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재고취시키기 위하여 여성을 재무장시키고 투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적으로 기존의 상담 방법을 매도하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 흐름은 투쟁적이고, 적의에 차 있으며, 어두운게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담에 대한 생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항상 '이게 아닌데----, 여성 상담은 여성의 여성적 특성을 키워 주면서 더욱 건강한 여성으로 되게 하기 위한 조력 과정이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제목을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상담'이라고 정하고 상담의 정의(定義)와 목표(目標)와 과정(過程)을 재정리하면서 그 내용에 함축된 '여성성'을 찾아 보고, 지금까지의 여성상담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여성상담의 실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여성상담의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용어의 정리

여성 상담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양하게 혼용(混用)되고 있는 상담 관계의 용어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상담에서 혼용되는 용어들은 상담, 상담심리, 상담심리학, 상담학, 카운슬(셀)링 counseling, : 상담가, 상담자, 카운슬러(셀라) counselor, 치료자: 심리치료, 정신치료, 심리상담: 여성상담, 여성치료, 여성주의치료 등인데 나는 이 글에서 이 용어들을 상담=상담심리, 상담심리학, 상담학, 카운슬(셀)링(counseling): 상담가=상담자=카운슬러(셀라)(counselor)=치료자: 심리치료=심리요법=심리

상담=치료: 정신치료=정신요법: 여성주의상담=여성상담=여성주의치료=여성치료 등의 등식으로 쓰기로 한다.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상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조력과정이며, 상담심리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상담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학문 체계를 의미한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상담'이라는 용어로 '상담 심리'와 '상담심리학'을 포함하여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무슨 분야를 전공하세요?'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의 경우 '상담이에요'라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상담심리(학)이에요.'이다. 최근 상담활동에 종사하는 학자들 사이에 상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진 듯하다. 박성수 교수는 '신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이라면,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학문은 상담과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나는 이 용어가 상담이라는 학문 영역의 독립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상담학'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많이 쓰여지리라 믿는다 물론, 상담이라는 단어에 '학'자가 붙기 위해서는 '상담'에 전형적인 학문적 기초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자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카운슬(셀)링 counseling이라는 외래어로 그대로도 쓴다. 그 이유는 '상담'이라는 용어가 '토지 매매 상담' '미용 상담'등등으로 지나치게 상용(常用)되므로 이와 구분하여 '상담' 본래의 학문적 뜻을 지키기 위해서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고전적이어서 수 많은 상담심리학 교과서를 저술한 학자들과 임상가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아직 명확한 구분이나 해답이 없다. 어떤 이들은 두 용어를 구

분할 필요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상담자가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심리치료에서 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자가 심리치료라고 보는 활동을 상담자가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상담과 심리치료는 별개의 것이라기 보다는 성격과 정도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문제들 내에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분과학회 명칭이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로 되어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담은 심리치료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상담과 심리치료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어서 상담활동으로 시작하여 심리치료로 연결되므로 이 두 용어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재로 쓰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저서의 제목들도 대부분 'counseling and psychotherapy'라고 되어 있어 상담과 심리치료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영어의 psychotherapy를 번역할 때 심리학자들은 '심리치료'를,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치료'를 선호해서 그렇게 정형화 되었다. '심리치료'와 '심리요법' 그리고 '정신치료'와 '정신요법'은 동의어로 쓰인다.

심리상담이라는 말은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 교육상담, 진로상담, 법률상담, 신앙상담, 결혼상담등 여러 가지 종류의 상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상담은 다루는 문제의 내용이나 상담을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심리치료와 매우 비슷하다.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많을 만큼 유사하기 때문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는 같은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상담은 상담심리, 상담심리

학, 상담학을 포괄하는 용어로 쓸 것이며,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을 동일하게 쓸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활발히 파급된 여성해방운동이 기초가 되어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하여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여성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적체되어온 여성문제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자아실현을 가능케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여성학은 기존의 학문에서는 불가시적(不可視的)이었던 여성의 존재를 가시적(可視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성중심이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중심적인 즉 여성주의(feminism)의 시각으로 기존의 사회 체제의 구조 및 현상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시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이 상담과 심리치료에도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각광을 받은 것이 '여성(심리)치료' 즉 feminist(psycho)therapy이다. 여성치료를 혁신적인(innovative) 심리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Corsini(1981)는 '여성(심리)치료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처음에는 가졌으나 여성(심리)치료의 연구내용을 이해 하고는 여성중심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심리치료는 이론적 과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윤리적, 전문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심리치료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여성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야기되는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여성심리치료는 치료라기 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신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성 심리치료자들은 여성의 문제가 '개인적인(personal)'것이 아니라 '사회적인(social)'것이라고 인정하면서(Brown & Liss-Levinson, 1981)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를 직면케 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는 여성상담은 '여성 내담자를 도와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여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여성, 즉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이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성성의 원형'을 갖추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여성학에서 표방하는 '의식향상'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데 반하여 나의 주장은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속성을 살려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잘못된 인도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성적인 것'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영향력을 확산 시켜 보자는 것이 나의 여성상담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성상담, 여성주의 주의 상담, 여성주의 치료, 여성치료 등의 용어들은 서로 조금씩 틀리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여성 내담자를 도와주는 상담=여성상담'이라는 등식으로 사용하면서 용어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상담의 여성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는 상담은 여성성의 원형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믿는다. 우선 상담의 목표에 여성성의 원형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상담을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는 힘을 길러주는 원동력'이라고 보며, '인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개발과 인간만이 지닌 존엄성과 권위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상담에 대한 그림은 '양육, 격려, 이해, 보살핌 등의 일련의 여성성의 특성으로 연결된다. 상담의 과정은 사려 깊고 섬세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때때로 그 결과는 불투명하고 애매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복잡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속성들의 복합체인 까닭이다. 이러한 정의에

맞는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나는 Rogers의 상담자의 인성 특성의 세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 즉 '진실성과 일치감' '공감적 이해' 그리고 '긍정적 관심 또는 존중'들을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다.

상식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담자는 사람마다의 각기 다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편견 없이 내담자를 대하고 내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염려하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울 때 상담의 효과는 그만큼 더 촉진 될 것이다. 이는 자녀를 기르는 모성의 본질이며 상담자가 이런 본질을 가지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첨가되어야 할 사항은 내담자에 대한 순수한 이해이다. 즉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이나 가치관 등에 의하여 내담자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치 상처 받은 마음이 어머니에게서 위로 받을 수 있듯이 상담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순수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 하여야 한다는 믿음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온정있는 동반자로서 꾸준한 관심과 슬기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 아픔과 즐거움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런 내담자의 심정 자체를 같은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 드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개념은 융(Jung)의 '어머니의 원형' 즉 mother nature(양육, 보살핌, 수용등)의 개념에 가깝다. 나는 상담의 여성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믿는다.

여성상담

여성상담에 대한 나의 광의적 정의는 '여성내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성의 인간적 발달과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포함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내는 과정'이다.

여성상담은 여성해방운동(혹은 여권신장운동)을 계기로 1960년대 끝무렵에 태동되었다. 여성상담 발전의 출발점은 미국인데 미국에서의 여성상담의 발달을 이 장호(1996)는 대략 세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 끝 무렵부터 약 10년간으로 보았다. 이 기간 동안 여성상담자들은 남성들에 의해 발전된 전통적 치료체계들 속에는 남성중심적 편견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여성심리학이 하나의 연구영역으로서 대두되고 1969년에는 여성심리학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 AWP)와 미국심리학회 제 35분과회인 여성심리학회(Psychology of Women)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성상담과 관련된 학술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약 10여년간은 앞서의 비판을 토대로 기존의 치료적 접근들에 숨어 있는 성차별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여성운동의 이념을 기존 치료 체계들과 통합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성해방운동의 핵심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상담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여성상담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통합된 상담모형이 없었다. 심리내적인 것에서부터 대인관계론적인 이론과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심리학회의 상담심리학 분과회 산하에 여성문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여성내담자를 상담할 때의 원칙들이 천명된 바 있다. 또한 1982년부터는 여성상담자와 이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공식적인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여성상담이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성상담자들은 여성상담의 여러 이론들이 불완전할 뿐더러, 다른 이론적 접근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성운동의 철학과 심리학적 모형들을 통합하는 보다 일관성있는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이론은 억압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발해낸 일종의 대처기술(coping skills)이 바로 성격과 행동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으로 발전할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 상담모형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합치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상담은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의 치료 처럼 어떤 통일된 이론적 기초나 고유한 기법, 혹은 창안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학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성상담을 주창하는 상담자들은 여성상담의 원칙과 철학적 기초에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상담의 발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성학적인 연구와 발달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서구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등으로 여성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성차별적인 관습과 가부장적 규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1975)'를 기점으로 여성운동과 여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983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일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남녀공학 대학들에도 널리 개설되어 있고 여성연구소도 많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성학의 발전과 여성 일반의 의식의 개혁은 병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학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여성상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여자 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담하는 여성 상담자들 사이에도 확산이 되었다. 이화여대 학생생활지도 연구소의 백선옥(1985)이 '여성상담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일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화여대의 여성 상담자들(이은순, 이혜성)이 여성상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숙명여대에서도 이영희 교수가 여성상담에 관한 기초가 되는 논문들을 여러편 발표했고 박애선의 박사학위 논문은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이론적인 섭렵을 조직적으로 서술한 논문으로 간주될 만 하다. 이 몇편의 논문들은 한결같이 성차에 관한 연구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그리고 양성성에 관한 연구등 여성학에 대한 이론들과 상담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소영의 연세대학교의 박사학위논문(1985)은 여성의 의식 향상 훈련을 여성상담의 집단상담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여기 저기서 호응을 받기도 했다. 서강대학교의 최해림은 '여성상담의 과정 및 기술'에 관한 논문에서 여성상담에서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Forisha(1982)의 7단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여성상담의 실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다. 간략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상담은 여성상담자 또는 여성상담학자들에 의해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여성 상담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출판한 '여성상담의 실제'가 처음이다. 이 책에는 여성상담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한국여성의 실정에 맞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이 연구의 주제나 목적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 후에 역시 여성개발원에서 '여성상담 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1988년 6월 30일)여성상담과 여성개발에 관한 여성 상담자 및 여성 상담학자들이 '여성상담'과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논란이 활발했었다. 그 세미나의 분위기는

다분히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상담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시급하다'는 쪽이었으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상담은 여성 내담자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장을 도와주는 과정, 즉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개발 시켜주는 것이 여성 상담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이어서 같은 해에 한국여성 개발원에서는 '여성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여성상담자들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는 일을 했다. '여성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여성상담의 기법과 특수성의 제고에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 여성 상담의 발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외국 특히 미국의 여성주의 심리상담자들의 저서가 많이 번역되어서 여성 상담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미리암 그린스팬의 'A New Approach to Women & Therapy'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고 석주가 번역을 했는데 여성주의적인 상담과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 또 하나는 진 시노다 불린이 지은 'Goddesses in Everywoman'은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주현과 조명덕에 의해 번역이 되었는데 인본주의적인 여성 상담을 지지하는 여성 상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된다. 이 두 책은 모두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에서 출판되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학 발전과 여성 상담 및 치료에 끼친 공로는 앞으로 크게 찬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상담에 대한 일관된 정형화된 상담이론이나 기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면 여성상담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상담의 이론이나 기법과 크게 다른 기법하고 유용한 모형은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상담의 사례

지금까지 나온 여성상담에 대한 논문들은 상담에 대한 이론 또는 여성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여성상담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다루어 왔다. 이 글에서는 여성상담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상담하면서 여성상담의 실재를 귀납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대학원의 여성상담 연구 과목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다루어진 사례들 중에서 한국 현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상의 여성내담자를 설정하여 '한국적인' 여성상담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면서 얻은 것이다. 이 강의의 수강생 중 한 사람으로 여성상담 전문가라고 지칭될 수 있는 상담자 김예숙(인천 여성전화 대표)이 10회에 걸쳐 했던 여성상담의 사례를, 본인의 승인을 얻어서, 인용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 사례는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한 여성에게 부과될 수 있는, 또는 부과되고 있는 힘겨운 역할을 이행해 나가는 여성내담자를 상담한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딸로서, 여자 형제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가운데서 느끼는 갈등과 좌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여성 내담자 소개

37세의 이 여성 내담자는 최근에 미칠 것 같은 느낌에 몰려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 말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몹시 놀라서 내담자에게 무서우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 한다. 내담자는 그대로 지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여성상담소에 와서 단기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한다.

그녀는 다섯 형제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맏딸이었다. 계를 많이 하며 집을 자주 비우는 어머니를 도와 어려서 부터 집안 일을 해야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빗쟁이에게 쫓긴 어머니가 피신해 있어서 어머니 대신에 집안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버지도 집을 나가 외도상대와 동거 중이었고 오빠들은 군복무 중이어서 집 안에는 내담자와 동생들 뿐이었다고 한다. 내담자는 빗쟁이에게 시달리고, 동생들을 돌보고 피신 중인 어머니도 돌봐야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큰 오빠의 친구로 부터 지속적인 유혹을 받던 내담자는 자신이 집을 떠나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다. 실제로 내담자의 결혼 후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왔고, 재결합을 하였는데 동생들은 그 때 언니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며 지금도 원망한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내담자를 불러 해결을 부탁하곤 한다. 올해로 결혼한지 19년이 되는 내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친정으로 부터 멀어지고 싶어 '출가외인'이라고 하자, 아버지가 요즈음은 '남녀평등'이라고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혼후 내담자는 남편이 알콜중독임을 알게 되었다.대학까지 나온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여, 딸 셋을 낳은 결혼 9년 후에는 농촌에 있는 시집으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내담자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농사의 경험이 없는 내담자에게 심한 육체적 노동을 시켰다. 감정이 틀어지면 시어머니는 술을 마시면서 밤새 소리 질렀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강요로 내담자는 밤새도록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다. 그리고 모두 대학을 나온 시누이들은 울케를 무시하며 대화에 끼어주지 않았다. 비교적 자기주장이 강하던 내담자는 시집살

이 4년 동안 기가 꺾이고 자신감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고 시집을 떠난 지 5년이 넘은 지금도 명절 때 시집에만 가면 병든 닭처럼 비실거린다.

알콜중독인 남편은 신혼초 부터 좋은 남편이 나 아버지가 아니었다. 내담자는 아이들을 잘 길러야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았으나 이제는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알콜 중독자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에 매주 참석하고 거기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남편이 직장에 다니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살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보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사춘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혼란스러움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모두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식구들 모두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을 때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을 자주 받아서 목욕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여성상담의 실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면담에서 내담자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을 쏟아 놓았다.

친정생활 결혼생활 시집살이에서 느꼈던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 놓았기 때문에 상담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여기서 상담자는 로저스의 이론을 생각하였다. 로저스(1942)는 '효과적인 상담이란, 내담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할 정도로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확실하게 구조화된 허용적인 관계로 구성된다.'라고 하였다. 인간중심치료를 정립한 로저스는 상담의 목표로 4가지를 내세웠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충동, (지성에 비해) 감정의 중요성, (과거에 비해) 현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치료적인 관계 그 자체가 성장경험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상담자는 치료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치료적 관계의 요소인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과 '반영'을 하며 두 번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여성운동에서 말하는 자매애도 첨가되어 있었는데, 내담자의 삶이 가부장제에 의한 피해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려난 것이었다.

세 번째 면담에서는 아직도 내담자의 가슴에 남아 있는 감정(분노)의 웅어리들을 털어 버리기 위해 내담자의 개인사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현재의 감정과 연결된 잊혀졌거나 억압된 과거의 경험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개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네 번째 면담에서는 내담자를 괴롭히는 핵심 감정을 심리극을 통해 재현해 보도록 하였다. 심리극을 통해서 내담자의 정서적 갈등을 명료화 할 수 있고, 나아가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이 사례에서는 심리극의 기법 중에서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였다. 내담자가 웅어리를 갖고 있는 감정의 근본적인 다양한 인물들을 의자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역할을 바꾸어서도 시도하였다. 감정의 행동화를 통하여 얻은 통찰력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면담에서는 심리극을 마무리하였다. 역할극을 하며 얻은 통찰을 내면화해 나가는 작업이었다. 감정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화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대한 정신역동적 이해와 연결시켜서 내담자가 심리극에서 얻은 통찰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

녀는 자신이 어려서 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찰은 내담자의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행동하여서 내담자는 딸로서 어머니로 부터 사랑받지 못 했다는 결핍감을 심히 느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은 어머니와는 다른 여자가 되어야 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남편으로 부터 사랑 받는 아내가 되고 자식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어 살아야 겠다는 일념으로 결혼후 겪은 모든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는 마음이 생겨 갈 등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섯 번째 면담에서는 다섯 번째 면담에서의 통찰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내담자가 현재의 곤경에서 빠져나오려면 강박관념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상담자는 엘리스의 이론을 생각하였다. 엘리스(1961)는 혼란을 가져오는 주원인인 비합리적인 사고를 자기분석으로 바꾸게 하는 교육적 모델을 제시했다.엘리스는 '타인이나 어떤 사건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고 믿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상담자는 엘리스의 'ABC기법'에 따라 논박하였다.그런데 논박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선천적인 비합리성과 함께 여성에게 헌신하는 역할을 일방적으로 맡긴 가부장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상담자는 기존상담이론에 여성학적 시각이 첨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는 남편과의 싸움이나 친정식구들과의 언쟁을 보고하였다. 미칠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내담자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보기만 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위니코트(1965)가 말하는 참된 자기

를 구성하는 것--를 조금씩 알아가고 표현하려고 하는 만큼, 행동치료에서 제시하는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담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은 숨기고 타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주장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아홉번째 면담에 이르기 까지 상담자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내면화 하게한 그녀의 비합리적 사고는 무엇인지를 함께 분석하는 일과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을 적절하게하는 연습을 시켰다. 내담자가 익힐 수 있도록 비합리적 신념들을 반복해서 논박하고 합리적, 정서적 치료의 기법인 '숙제 내주는 기법'도 내담자에게 적용하면서 책을 읽게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해보도록 하였다. 새로운 행동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연습하도록 하였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기: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편안하게 긴장을 완화하라. 둘째, 자신을 존중하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을 억누르려는 행동을 그만 두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셋째,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기: 나는 이런 점에서 좋은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을 기억하자. 단점을 뒤집어서 장점으로 생각해보자. 넷째, 하지 않았던 행동하기: 망설였던 행동을 과감하게 해보자. 혼자서 행동하자. 좋은 일을 하자.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이화여대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자료에서 인용).

마지막 열번째 면담에서는 지난 면담들을 총 정리하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성과를 정리해보도록 했다. 무엇보다 내담자는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했다. 아직도 감정의 웅어리는 남아있지만 과거의 사고를 논박으로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면서 익히는 경험을 하면서 그 웅어리는 언젠가는 없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

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를 평가하게 하였다. 여성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자매에 그리고 두 사람의 인간적 평등-전문성에서의 불평등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무엇보다도 상담자가 같은 여성이어서 안심이 되었으며, 모든 문제가 자신의 탓만이 아니고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상담에 대한 귀납적 결론

이상에 소개한 10회의 면담으로 이루어진 상담과정에서 여성상담에 대한 귀납적 결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상담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여성상담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에서 위계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문제의 원천인 억압과 복종의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영속화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둘째, 여성내담자의 이해에서는 여성내담자의 개인사를 정신역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가부장제의 피해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해도 그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역학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내담자의 감정처리문제이다. 여성내담자들은 오랫동안 억압되어온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 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감정들을 심리극을 통해 발산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넷째, 여성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통찰이다. 여성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본인의 생각대로 선택

하는 주장성의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상담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담기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억압된 감정을 들추어내기 위해서는 정신역동적 접근을, 자기자신의 자아인식을 위해서는 인간중심 상담 접근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실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dler식 치료 접근을, 비합리적인 사고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정서적 접근을, 새로운 행동의 연습을 위해서는 행동 치료 접근 등을 절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섯째, 여성내담자의 삶의 변화이다. 여성내담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극성이나 수줍음을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여성상담에 대한 결론이 일반상담과 다른점은 여성상담이 지금까지 열등한 것으로만 여겨온 여성적 가치관, 여성적 행동양식, 여성적 특성의 의미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성상담은 남성중심적 가치관에 의해서 부정되고 비하된 여성성을 발굴하여 이 사회를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혁명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계현 (1996). 상담심리학. 학지사.
- 문은희 (1985). 여성개발과 여성상담. 여성상담의 실제. 27-51.
- 박성수 (1996). 수월성을 위한 청소년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여름호), 3-4.
- 박성희 (1997). 상담학 방법론. 양서원.
- 박애선 (1993). 여성주의 집단 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선옥 (1985). 여성상담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일 연구. **학생생활연구**, 21, 17 - 32,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 이영희 (1980). 여성차별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조명. **아세아여성연구**, 19, 123-144.
- 이영희 (1984).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여성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3, 9-19
- 이영희 (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여성상담의 실제**, 71-93. 한국여성개발원.
- 이장호 (1997). **상담심리학 제3판**. 박영사.
- 이은순 (1987). 여성상담과 여성문제. **학생생활연구**, 23, 39-59.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성 (1985). 여성상담과 여성심리. **여성상담의 실제**, 55-69, 한국여성개발원.
- 이혜성 (1986). 카운슬링 실습과정이 중년여성의 성별특성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0, 377-40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혜성 (1993). 한국여성상담의 정착을 위한 상담방향 모색에 관한 일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63, 59-7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정소영 (1990).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경 (1992). 미래가 요구하는 여성: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 **사회과학연구**, 9, 185-196.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최해립 (1989). 여성상담의 과정 및 기술. **인간이해**, 10, 49-57.
- 최해립 (1995) **한국여성의 정신장애와 여성중심 치료. 정신치료**.
- 한국여성개발원 (1988). **여성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그린스펜 지음, 고 석주 옮김 (1995).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볼린 지음, 조 주현과 조 명덕 옮김 (1992).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코르시니 외(外)지음, 이 혜성 옮김 (1997). **다섯 명의 내담자와 한 명의 내담자**. 이화여대출판부.

The Femininity of Counseling and Women Counseling

Hie S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peculate about the femininity of counseling and to formulate the concept of women counseling.

It is obvious that the definition, processes and objectives of counseling reflect the archetypes of femininity, namely, care, tenderness, nurturing, understanding and the sensitivity toward others. Reviewing the literature on women counseling, so far, the emphasis of women counseling are the possession of social power, the challenge against the unfairness of sexis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ying sisterhood. Generally, these are agreeable points. However, I, the writer of this study see the activities of counseling include encouragement, care, nurturing the clients who need help from counselo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raw a conclusion of women counseling as follows:

"Women counseling is to help the female clients to actualize their femininity which has been suppressed by the male oriented society." There, still, remains numerous aspects on the research of women counseling which will lead the further study in the field of counseling, specially, the women studies.